2003학년도 12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제 1 교시 •
언어 영역

정 답

1	④	2	⑤	3	①	4	②	5	③	6	⑤	7	④	8	②
9	⑤	10	①	11	②	12	②	13	③	14	③	15	③	16	①
17	①	18	④	19	②	20	⑤	21	⑤	22	④	23	③	24	③
25	②	26	①	27	①	28	⑤	29	①	30	⑤	31	⑤	32	②
33	②	34	⑤	35	③	36	④	37	④	38	⑤	39	④	40	③
41	⑤	42	③	43	①	44	①	45	①	46	③	47	④	48	④
49	④	50	⑤	51	⑤	52	②	53	⑤	54	⑤	55	②	56	③
57	③	58	②	59	④	60	③								

해 설

[1] 이제 여러분은 가족간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안 식구들 모여 약자지걱하며 떠들썩한 분위기)
병규 : (명랑한 목소리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작은아버지 : 오, 그래. 병규가 많이 컸구나.
병규 : 어, 삼촌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삼촌?
작은아버지 : 오랜만에 만났으니 병규 용돈 좀 줘야지. 옜다!
어머니 : 아유, 도련님도 참, 애한테 무슨 그런 큰돈을 주세요?
병규 :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 삼촌.
어머니 : 녀석도 참……, 이층에 친척 어른들께서 다 와 계셔. 올라가서 인사 드려야지.
할아버지 : 병규야.
병규 : 예, 할아버지. (사이) 심부름해 드릴까요?
할아버지 : 아니다.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어서 그래. 아까 삼촌이라고 불렀지? 이제 결혼도 했으니 작은아버지라고 해야지. 그건 어멈도 마찬가지란다. 도련님은 결혼하기 전에 부르는 호칭이고, 결혼하고 나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법이야.
엄마·병규 : (동시에 쑥스러운 듯) 네,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 자, 이참에 호칭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라. 아버지의 여자 형제는 고모, 그 남편은 고모부, 그리고 어머니의 여자 형제는 이모, 그 남편이 이모부라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럼 어머니의 남자 형제와 그 아내는 뭐라고 부를까?
병규 : 외삼촌, 그리고 외숙모, 맞죠?
할아버지 : 그렇지. 그건 잘 알고 있구나.

---

1. **[출제 의도] 청취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적용하기**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남동생(시동생)에 대한 호칭은, 결혼 전에는 '도련님', 결혼하고 나면 '서방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에 등장하는 병규 삼촌은 결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경제학자와의 인터뷰입니다. (사이)

경제학자(50대 남성)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드 사용 실적이 이전에 비해 열 배 이상 증가했고, 경제 활동 인구 한 명당 카드를 너댓 장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카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무려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개인의 경제적 파산은 물론 사회 전체의 경제마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나 금융 기관이 모두 발벗고 나서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찰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사이)

경찰 관계자(40대 남성) : 우리 경찰에서 자체 조사한 바로는, 2003년 상반기에 신용 카드로 인한 자살이나, 강도, 사기, 살인 등 각종 범죄 발생률이 작년보다 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터지는 신용 카드 관련 사건 사고 때문에 발 뻗고 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과의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사이)

대학생(20대 초반 여성) : 저는 일 학년 때 길을 가다가 카드 발급 홍보 행사를 하길래 신용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멋 모르고 쓰다가, 결국 일 년도 채 못 되어서 카드 빚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렸어요. 신용 카드, 그거 잘못 쓰면 마약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카드 회사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경제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실적만 높이려고 카드를 마구 발급하고, 게다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

2. **[출제 의도] 중심 내용의 추리**

글의 주제와 인터뷰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이를 <보기>의 그림과 연관지어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해야 한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사회학자는 카드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기관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인터뷰에서 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으로 인해 증가하는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뷰에서 대학생은 카드 남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에 대한 진술과 함께 금융 기관의 그릇된 관행을 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 안에는 이를 모두 종합한, 즉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는 동시에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라는 표현과 함께 '레드카드'라는 말로 '신용 카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은 신용 카드 발급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두 번째 인터뷰 내용과는 무관하다. ③은 기업의 개입을 주장한 것이므로 첫 번째 인터뷰 내용에만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3]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산업 구조가 더욱 선진화됨에 따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는 여전히 서비스 산업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낳게 만드는 사치·향락 산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치·향락 산업은 서비스 산업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무에 작은 상처가 났다고 해서 나무를 잘라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서비스 산업의 본질적 성격과 기능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은 기간 산업의 생산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 금융, 통신 관련 서비스 산업은 모두 제조업의 생산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휴대폰 사업 등 정보 관련 서비스 산업은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도 하는 문화·관광·레저 관련 서비스 산업은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편리하고 즐겁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출제 의도] 발화의 궁극적 의도 추리

강연자는 서비스 산업을 단순히 사치·향락 산업으로 매도하는 시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산업이 본질적으로 기간 산업의 측면 지원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연의 취지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본질과 효용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4] 이번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 인터넷이 우리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 와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생산적이고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된 불법, 유해, 허위 정보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 우편함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 월드컵 기간 중 있었던 서해 교전과 관련하여 선동적인 글들이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떠돌아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익명의 횡포에 당하는 피해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실명 사용을 강요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실생활 공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병폐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타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명제를 도입하면 정말 게시판이 깨끗해질까요? 과거 PC 통신 시절, 완전히 실명제로 운영되었지만 명예 훼손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이 결코 지금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권리는 남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울 수는 없듯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는 네티즌들이 자율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4. [출제 의도] 토론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이 토론에서 여자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자는 서해 교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바탕으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제시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남자는 익명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실명제 실시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양날의 칼,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울 수 있듯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토론의 상대방에 대해 질문의 형식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지는 않다.

[5~6] 이번에는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직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선생님, 먼저 직업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이 선생님(남자) : 직업이라는 말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직업은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지속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직업이 단순한 노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김 선생님, 저는 직업 하면 우선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 선생님(여자) : 그렇습니다. 인간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독립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때부터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 봉사는 직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직업에서 경제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선생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말씀을 들어보니 직업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요소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이 선생님 :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내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또 하고 싶어하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 이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라디오 뉴스의 한 대목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기 자 : 홍길동 씨는 최근 상황 버섯 재배법 발명 특허를 받아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홍길동 씨는 어려서부터 버섯 재배를 유달리 좋아하였고, 알려지지 않은 버섯을 발견하는 데 몰두하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그는 버섯의 인공 재배법을 찾아내었고, 지금은 이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새로운 재배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그저 자신의 적성에 맞아 재미있었다고 말합니다.

---

5. [출제 의도] 대담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기

이 대담에서는 먼저 직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유의할 점을 살펴보고 있다. 직업은 단순한 일과는 다르고, 생계 유지와 자아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담에서 직업의 결정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직업이 사회적 역할 수행, 생계 유지, 자아 실현 등의 역할을 하므로 단순한 노동과는 다르다. ③ 인간은 직업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6. [출제 의도] 대담에서 뉴스 장면을 인용한 의도 파악하기

이 대담에 제시된 뉴스 장면은 홍길동 씨가 어려서부터 상황 버섯 재배에 흥미를 느껴 인공 재배법을 찾아냈고, 그 방법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버섯 재배가 자신의 적성에 맞아 재미를 느끼면서 일에 몰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다.

7. [출제 의도] 글감의 연상

컴퓨터 게임에서 연상된 항목이 옳은지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내용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폭력성'에서 연상된 내용이 경쟁 의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경쟁 의식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없으며 폭력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에 잘못된 것이다. 폭력성에서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은 '전쟁이나 폭력을 소재로 한 게임의 영향을 받아 싸움을 자주 하게 된다.' 정도가 적절하다.

8. **[출제 의도] 자료의 활용과 개요 고쳐쓰기**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하는 문제이다. '전개-1-가'는 '국어를 경시하는 풍조'라는 내용이므로 '인터넷 채팅 언어의 문법 파괴가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란 내용과 상관성이 없다. 이것은 또한 영향이지 개요의 상위 항목인 원인 규명이라고 볼 수 없다.

9. **[출제 의도] 글감의 수집 및 분류**

⑤에서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소비는 감소했다.'는 구절은 ㉠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쌀값이 하락하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절은 ㉡의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국민들의 쌀 소비를 늘려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방안' 또한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가 주는 영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에 부합한다.

[오답 피하기] ①은 ㉠과 ㉡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에 나타난 농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②은 ㉡의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어 ㉠의 쌀 소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출제 의도] 맞춤법에 맞는 어휘의 선택**

ㄱ-1은 '으스대고(으스대다)'가, ㄱ-2는 '으스스'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ㄴ-1은 '치르고(치르다)'가, ㄴ-2는 '잠갔다'(잠그+았+다)가 맞고, ㄷ-1은 '들렀다'(들르+었+다)가, ㄷ-2는 '들려'('들다'의 사동형 '들리'+어)가 맞다.

[오답피하기] 흔히 편하다는 이유로 '으시대다'(×), '으시시'(×)처럼 발음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보기>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부사어 '부스스'(○)도 '부시시'(×)로 흔히 잘못 발음한다. 또한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의 뜻을 지닌 '들르다'(○)도 '들리다'(×)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11. **[출제 의도] 표현하기**

'구상한 내용' 중 아들의 답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②이다. 민우와 화해하고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할 때,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12. **[출제 의도] 관용어로 고쳐쓰기**

①~⑤는 모두 '신체'의 기관과 관련된 관용어들로 고쳐 쓴 것이다. ②의 '혀를 내두르다'는 '몹시 놀라거나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다.'의 뜻을 지니는 관용어이다. ②에는 '마음에 그늘이 지다.'란 관용어가 적절하다.

*** (13~17) (가) 윤동주, '자화상(自畵像)', (나)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다) 김광섭, '마음' (현대시)**

13. **[출제 의도] 작품의 종합적 이해**

(나)에서는 '내 마음'의 어딘가에 '돋쳐 오르는 아침 날 빛이 빤질한/은결을 도도'는 강물이 흐른다고 하였다. 이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맑고 투명한 강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다)에서도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이라는 은유를 써서 마음을 흔들리거나 그림자 지는 구체적 감각의 대상으로 나타냈다. (나), (다) 모두 추상적 관념에 해당하는 '마음'을 감각의 대상으로 형상화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가)에는 감정의 모순이 나타나지만 대조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나)에는 아무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②(가)에는 임과의 관계를 나타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다)에는 괴로움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와 ⑤는 모두 사실과 달라서 적용되는 작품이 없다.

14. **[출제 의도] 중심 소재의 의미 추리**

(가)의 '우물'은 화자가 자신의 내적 갈등을 비추어 보는 성찰의 도구이다. 달과 구름과 하늘 등이 비치는 맑고 투명한 우물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시켜 성찰하고 있다. (나)의 '강물' 역시 '아침 햇빛이 반짝이는 은물결을 돋우는' 맑고 투명한 물로, 자신의 마음을 투영하는 대상이다. (다)의 '물결'은 미세한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는 섬세한 물이다. 화자는 이런 물결과도 같이 흔들리기 쉬운 자신의 마음이 고요한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는 물이 수평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이용해 자신의 심리적 평정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15. **[출제 의도] 소통 구조의 파악**

(가)의 시적 화자는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우물에 비쳐진 '사나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즉, 화자는 보이지 않지만 우물에 반사된 '사나이'의 모습을 통해서, '사나이'가 바로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청자는 화자(=사나이)의 말을 듣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나이'와 동일 인물이 될 수 없다. ②시인이 '사나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우물에 비친 자신(=사나이)을 관찰하는 것이다. ④'미움'은 화자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내적 갈등을 의미한다. ⑤경어체를 쓰는 것이 화자와 청자의 신분이 다르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6. **[출제 의도] 표현 효과의 추리**

<보기>와 (나)를 비교할 때 가장 달라진 점은 규칙적인 음보의 생성이라 할 수 있다. <보기>에서는 음보율이 느껴지지 않지만 (나)에서는 3음보의 규칙적 율격이 드러난다. (나)에는 행별로 '4/2/4/2/3/3/4/2'의 음보가 나타나는데 이는 결국 3음보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17.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와 표현 의도**

(가)의 '바람'과 '구름'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물이기는 하지만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 시는 종교적 분위기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①과 같이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8-22) 곽영직,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 지문)**

18. **[출제 의도] 핵심 내용의 파악**

이 글에서 글쓴이는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과학은 무조건 옳으며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며, 둘째는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결론에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기에 두 항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과학적인 결론을 얻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과학적인 결론은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 나온 것이지만 이것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19. **[출제 의도] 문맥적 의미의 파악**

과학 방법에 충실했다는 것은 2문단에서 제시되어 있다. 즉,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그 결론이 유도되는 과정이 합리적일 때 과학적이 된다고 했다.

[오답 피하기] ④ 과학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려낼 능력과 방법이 없기에 그 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과학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20. **[출제 의도]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

귀납법이란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 원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 했다. 그러므로 동물들의 행동 습성을 관찰하여 동물들은 영역 수호 본능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⑤가 귀납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귀납법에 의한 결론은 확률에 의해 나온 것이므로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죽는다.(대전제) - 고양이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소전제) - 따라서 고양이도 죽는다.(결론) 나머지도 모두 연역법에 따라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연역법은 참으로 인정되는 대전제로부터 출발하기에 대전제와 소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당연히 참이다.

21.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

글쓴이가 과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당부한 두 번째 내용은 과학적인 결론도 결국 오류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데는 이런 한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능에 대한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과학적인 과정에 따라 나온 결론일지라도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가장 적절하다.

22. **[출제 의도] 의미간의 관계**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론이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한계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결론일지라도 무조건 옳지는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를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 (23-27) 정옥자, '선비의 선택' (인문 지문)**

23. **[출제 의도] 개괄적인 내용 이해하기**

5문단을 보면, '음직은 대부분 미관말직'에 그쳤다고 했다. 이는 그들이 다시 과거에 응시했다는 진술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③은 이 글의 내용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①은 마지막 문단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며, ②는 둘째 문단에서 대과에 합격해야 비로소 관직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한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는 6문단에서 '시대를 난세로 인식할 때 취하는 길'이라 한 내용, ⑤는 2문단의 '새롭게 집권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자기네 정파 혹은 학파의 인물을 널리 등용'했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출제 의도] 세부 정보 추리하기**

7문단에서, 과거를 통해 사회에 진출한 경우든 산림으로서 관리로 등용된 경우든, 일단 정계에 진출한 경우에는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강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둘 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지니고'는 '정치적 이념'이라는 목적어와 호응한다. 그런데 '소지(所持)'는 '가지고 있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을 뜻하는 말이므로 문맥상 '지니고'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바꾸어 쓴다면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킴'을 의미하는 '견지(堅持)하고'가 적절하다.

26. **[출제 의도] 추론 방식의 유사성 파악하기**

<보기>는 과거 출신 관리의 입장에서 음직 제도를 비판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덕망 높은 인사의 후손'이라는 현재의 조건이 반드시 그 자손의 인격이나 자질을 담보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보기>의 주장을 무리 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라야 한다. ①에서 '올해도 풍년이 들었으니'라는 말은 현재 주어진 조건이고, '내년에도 풍년이 들 것'이라는 말은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예측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도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기>의 주장과 긴밀하게 대응한다.

27. **[출제 의도] 태도의 유사성 추리하기**

㉡에는 어지러운 시대의 정치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스스로 몸을 숨기려는 탈속적인 삶의 태도가 동시에 드러나 있다. ①의 '백로' 역시 '까마귀'가 들끓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탈속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와 ③의 화자는 모두 세속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풍류를 즐기고 있을 뿐,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④의 화자는 몰락한 왕조에 대한 비애를 느끼고 있으며, ⑤는 ②나 ③과 같이 탈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늘 임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과는 차이가 있다.

*** (28-32) (가) 이항복의 시조 (나) 청산별곡 (다) 잠노래(고전 시가)**

28. **[출제 의도]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임금의 은총을 잃은 슬픔, (나)는 삶의 고뇌와 비애, (다)는 일에 짓눌리며 잠을 참아가야 하는 삶의 괴로움 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세 작품은 모두 시적 화자가 억눌린 내면 욕구를 시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⑤와 같은 문학에 대한 관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세 작품은 모두 인생을 소재로 하여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독자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줄 목적으로 창작한 것도 아니다.

29. **[출제 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시적 화자는 유배지로 가는 길에 철령에서 바라다 본 '구름'을 보고, 그것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자신의 입장과 같아 보여, 그를 청자로 삼아 자신의 슬픔을 '비'로 만들어 임금에게 전달해 달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봉'은 화자가 유배지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적 장치이다.

30.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작품 내용과 영상물의 장면을 대응시키면 각 연은 차례대로 장면들과 연결되어 있다. 5연의 내용은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맞히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는,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맞아 슬퍼하고 있는데, 장면 5는 '날아가는 새'를 향해 던진 돌이라고 하여, '돌'을 방향과 목표가 정해진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서 내용과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31. **[출제 의도] 내용을 다른 매체로 바꾸기**

이 작품은 일에 치여 힘든 여성 화자가 쏟아지는 잠으로 인해 겪는 괴로움을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침에도 잠이 오고 밤에도 바느질을 하려니 또 잠이 오는 상황 속에서, 의인화한 잠을 청자로 설정하여 원망하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하나, 가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작품 속에 나오지 않는다.

32. **[출제 의도] 발상 및 표현을 적용하기**

㉮는 '잠'을 의인화하여, 자신과는 대조적 처지에 있는,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나 가지, 왜 원하지 않는 자신에게 오느냐는 원망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우리 수재민들이 자신들을 농민들과 대조하여 '비'를 원망하고 있는 ②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청자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고, ③은 갈길이 바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④는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을 의인화시킨 것도 없다. 대조는 '하나'와 '여럿'의 차이가 설명된 ④에만 해당된다.

*** (33~37) 김만중, '구운몽' (고전소설)**

33.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글의 경우 특히 '남자로 태어나서~적막하기 심하구나'와 '불법 공부는~해롭지 않겠는가?' 등에서는 독백 형식을 통해 성진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③이 글은 서사와 대사, 그리고 내면 심리 묘사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사건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않았다. ④ 만연체의 문장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함축적인 문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34. **[출제 의도]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내용 정리하기**

이 글에서 성진은 사부의 추궁을 받고 처음에는 변명을 하지만 사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곧바로 죄를 고백하며 머라를 조아리며 운다. 따라서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음'을 의미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사부를 대하는 성진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오답 피하기] ①출장입상 : 나가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정승이 된다는 말로 유교적 입신양명 사상을 드러내는 말. ②자업자득 : 자신의 한 일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옴. ③청천벽력 :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쓰는 말. ④전전반측 :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양.

35. **[출제 의도]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감상**

이 글에서 사부는 제자가 부귀공명에 대한 유혹으로 갈등에 빠진 것을 알고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풍도를 거쳐 인간 세상으로 보낸다. 따라서 사부가 사사로운 정에 구애되지 않는 인물인 것은 맞지만 냉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겉으로는 엄해도 속에는 사랑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절을 떠나라는 사부의 말에 성진이 선처를 호소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진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사부의 정에 호소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 가지고 나이 많은 스승의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할 정도로 정이 많은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이 작품은 유교, 불교, 도교를 배경 사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시된 지문에서는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이 글은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성진이 깨달음을 얻어 도를 이루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⑤ 제시된 지문의 마지막 장면은 실제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전기성(傳奇性)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6. [출제 의도] 작가의 의도 추리

㉠은 성진이 속세에서의 출세에 대한 유혹 때문에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에 제시된 <뒷부분의 줄거리>로 볼 때, 성진은 인간 세상에 가서 직접 속세에서의 출세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참된 도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같이 성진이 세속적 욕망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속세에 이루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은 불가의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속세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참된 도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

37. [출제 의도] 인물의 심리 추리 및 적용

㉡은 성진이 불법 공부와 속세에 대한 욕망(사사로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불법 공부를 성진의 이상(理想), 속세에 대한 욕망을 현실이라고 볼 때 ㉡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것은 '티 없는 꽃잎(이상)'과 '그윽한 수풀(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린 ④번이다.

[오답 피하기] ① 노동자가 느끼는 삶의 무력감과 실의감을 형상화했다. ② 정렬적인 삶의 의지를 형상화했다. ③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을 형상화했다. ⑤ 기다림과 상실감을 형상화했다.

*** (38~42) 김태성, '사회 복지와 자유' (사회 지문)**

38. [출제 의도] 중심 화제 파악

이 글은 사회 복지와 자유와의 관계 규명을 통해 사회 복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글인데, 사회 복지 정책은 소극적 자유보다는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이다.

39. [출제 의도] 논지 전개 구조 파악

이 글은 (가)에서 논점을 밝혔고, (나)에서 글쓴이의 의견과 상반되는 논리(사회 복지 정책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를 소개한 다음, (다)~(라)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마)에서 마무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라) 중에 (다)에서는 반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라)에서 본격적인 반론을 펼쳤다. 따라서 (나)와 (다)의 관계는 (나)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수용한 뒤 (다)에서 이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40. [출제 의도] 글쓴이의 관점 파악

이 글에서 글쓴이는 소수가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줄이더라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방향에서 사회 복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세금 부과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된다. 소수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줄이더라도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다수의 자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대답이 글쓴이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평등의 가치를 위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대답이긴 하지만 글쓴이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② 언뜻 보기에 글쓴이의 관점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균등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③, ⑤ 나름대로 타당한 의견이지만 역시 글쓴이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41. [출제 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문맥적으로 볼 때 ⓔ는 '길이나 힘, 권리 따위를 길게 늘임'의 의미로 사용된 어휘이다. '시설이나 외관 따위를 새로 장치함'의 의미는 '신장 개업'이라고 할 때 나타나는 의미이다.

42.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은 소수가 누리는 소극적 자유의 제한이 다수가 누리는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킴을 뜻한다. ①, ②, ④, ⑤는 모두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지만, ③은 정반대로 승용차를 가진 소수의 소극적 자유를 위해 주민들 다수의 통행권이라는 적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이다.

*** (43-46) 전성수 '동양과 서양의 그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술 지문)**

43. [출제 의도] 세부 정보의 확인

그림 바로 아래의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서양 미술에서 원근법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는 2문단에서, ③과 ⑤는 4문단에서, ④는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44. [출제 의도] 쓰기 전략의 추리

이 글은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아울러 동양화, 서양화가 지닌 여러 가지 대조적 특성들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보기의 ㄷ은 유추의 전개 방식이며, 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찰하는 통시적 관점에서의 내용 전개 방식인데,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45.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그림 A는 동양화로서 먹물의 농담을 활용하여 명암을 처리한 작품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린 사실적인 그림은 아니므로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46. [출제 의도] 문장 사이의 논리 관계 파악

㉢은 동양화에서 사용된 먹, 붓, 한지, 화선지, 비단과 같은 재료들이 서로 조화로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③에 제시된 뒷받침 문장은 재료의 입수 장소와 특정 계층의 참여를 인과 관계로 연결지어 말하고 있어서, 그림의 재료 설명에 그치고 있는 문단의 통일성에도 어긋나고, ㉢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 (47-51) 현진건, '운수 좋은 날'(현대 소설)**

47. [출제 의도]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작품은 가난한 인력거꾼의 고달픈 일상과 그 아내의 불행한 죽음을 통해 일제 강점기 빈궁한 하층민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형상화한 빈궁 소설의 대표작이다. 오랫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온 하층민들은 거기에서 헤어나고는 싶지만,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불행은 더욱더 확대될 뿐인 것이 그들의 역사였고 또한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히 어떤 행운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불행의 그림자를 의식하여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도 김 첨지는 낮 동안의 행운과는 달리, 아내의 죽음을 대하고서 그 행운의 무의미함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은 결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로 보아 ④의 설명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추적추적', '찰깍', '잉잉', '엉엉', '딸꾹딸꾹', '빽빽', '응아', '어룽어룽' 등의 의성·의태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② 아내를 향해 상스러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김 첨지의 태도는, 그의 내면에 담겨 있는 순박한 애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한편, 하층민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③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부분에서 보듯 김 첨지가 느끼는 불안감은, 자신의 집으로 가까워 갈수록 그 정도가 점차 커진다. ⑤ 행운과 불행이라는 대립적 상황을 절묘하게 병치시키는 구성 방식을 통해 인물의 비극적 정황을 실감나게 형상화했다.

48. [출제 의도] 인물의 내면 심리 추리하기

제시된 글에는, 아내가 냄비에 밥을 끓이는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④처럼 김 첨지가 아궁이에 불을 때 아내에게 줄 밥을 짓고 있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② 김 첨지가 급하게 밥을 먹다 배탈이 난 아내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나온다. ③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 ~ 팔십 전을 손에 쥔 김 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49.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제시된 지문이나 <보기>에서나 시점(전지적 작가 시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① '김 첨지는 아내를 ~ 쥐어 주었다.', '아내를 바라보는 ~ 주르르 흘러내렸다.' 참조. ③ 원작에서 작가는 주인공이 겪는 행운과 불행을 교차시키는 한편, 우울한 사건의 흐름과 어긋나는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을 설정함으로써 극적 상황을 형상화하는 아이러니(irony, 반어)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⑤ 김 첨지의 행운과 대립하면서 사건 전개의 전 과정을 끊임없이 적시는 겨울비는 아내의 비극적 죽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주인공 김 첨지로 대변되는 도시의 하층민이 처한 열악한 삶의 조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50. [출제 의도] 상황을 파악하여 관용어 적용하기

㉠은 김 첨지의 몹시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 주는 상황이다.

[오답 피하기] ①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난다는 말. ② 아무리 애써 하더라도 보람이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③ 아주 흔하던 것도 정작 필요해서 찾으려니까 구하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 적은 힘으로 될 일을,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말.

51. [출제 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을 꼭 사 주고 싶어했던 김 첨지가 설렁탕을 사 들고 돌아왔건만, 아내는 설렁탕을 끝내 맛보지 못한 채 죽어 있다. 여기서 '설렁탕'은 가난으로 인한 상황의 비극성을 생생한 아픔으로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⑤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귤껍질을 주워 먹다 그 장면을 남편에게 들켜 부끄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귤껍질'은 '설렁탕'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의 음식물. ② 점순이의 애정이 담긴 사물이면서 '점순이'와 '나'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③ 인물의 울적한 감정을 해소시켜 주는 매개물. ④ 세 인물의 심리를 반영해 주는 매개물.

*** (52-55) (가) 제7차 교육과정 국어 해설, (나)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 구조 (언어 지문)**

52.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가)의 핵심은 마지막 문단에 있다.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적 표현과 비•반언어적 표현이 모두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나)의 핵심도 마지막 문단에 있다. 즉, 상호간의 조화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찰'이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글을 종합한 반응으로는 ②가 적절하다.

53. [출제 의도] 담화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며느리는 두 가지 일(젖을 먹이는 일과 빨래를 걷는 일)을 동시에 하기 힘들다. "어머님, 소나기가 오네요."라는 며느리의 말은 "죄송하지만 시어머니, 대신 빨래를 걷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는 뜻이 담긴 말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와 같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좀 쉬었다 일하렴'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며느리를 위하는 말로 들리지만, 이는 시어머니가 담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발화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또한 ①과 같이 퉁명스럽게 '얼른 빨래 걷으라'는 의도로 발화는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발화이다.

54. [출제 의도] 비판적으로 읽기

(나)의 두 번째 문단은 대조적 진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양의 언어는 변화가 심하고 위급한 생활 환경에서 생겨났으므로 정확한 의사 전달을 중시하는 면이 있지만, 통찰에 의한 의사 소통은 발달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런데 통찰의 의사 소통이 동•서양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위기와 상황이 없는 의사 소통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55. [출제 의도]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여 적용하기

<보기2>의 설명에 따라 <보기1>의 '차다'와 관련된 용례들을 의미에 따라 구분해 보면 된다. ㉮는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따위가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게 되다.'의 기본적 의미를 가진다. ㉯는 '어떤 대상이 마음에 흡족하다.'의 뜻으로 ㉮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나갔으므로 ㉮와 ㉯는 다의어 관계이다. 그런데 ㉰는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의 뜻으로 ㉮와는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멀어졌다. ㉱역시 ㉰와는 의미가 이질적인 동음어이다. 따라서 ㉰와 ㉱는 각각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수록한다.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의 의미를 지닌 ㉲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의 뜻을 지닌 ㉳에서 확장된 다의어임을 알 수 있다.

*** (56~60) (가) 법정, '설해목(雪害木)' (나)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수필 지문)**

56. [출제 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노승'의 일화에서 '사랑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으며, (나)는 '차치리'의 일화에서 '관념적 지식에서 벗어나 실천적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고 있으므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 피하기] ① (나)에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② (가)와 (나) 모두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으나, (가)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상정하고 쓴 글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⑤ 관념적 지식에 사로잡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57. [출제 의도]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하기

(가)에서 겨울에 쌓인 눈으로 가지가 꺾이는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 강함보다는 부드러움과 사랑이 소중함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④ 백천 마디의 좋은 말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던 학생이 노승의 다사로운 손길에는 눈물을 흘린다. ⑤ 망나니 같은 학생은 구태의연한 훈계의 방법으로는 바로 잡을 수 없었다.

58. [출제 의도] 낱말간의 관계 이해하기

첫 번째 낱말들은 '변화시킨 주체'이며, 두 번째 낱말들은 '변화시킨 방법'이고, 세 번째 낱말들은 '변화시킬 대상'인데, ②번 답지에서 '산'은 나무를 변화시킨 주체가 될 수 없다. 나무가 꺾이게 변화시킨 주체는 '자연' 또는 '조물주'라고 볼 수 있다.

59. [출제 의도] 세부 내용의 이해와 적용하기

차치리가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은 차치리가 발 보다는 '탁'을 더 중요시한다는 말이므로 ④번 답지에서 차치리가 발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물의 본질로 인정하는 것은 지문에 나타난 차치리의 입장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60. [출제 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서가(書架)'의 사전적 의미는 '문서나 책 따위를 얹어 두거나 꽂아 두도록 만든 선반'이나 지문에서는 '책에서 얻은 관념적 지식'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지붕부터 그리는 집'은 관념적 지식에서 나온 결과이며, '탁'는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나온 결과이다.